구 미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적 약자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교육감과의 일괄질문 · 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구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바쁘게 달린 2015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니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약자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의 실천공약을 보면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있습니다. 임기중 누계 추진율을 보면 0%입니다. 공약 실적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특수학교 용지반영 변경협의에 대한 공문회신 4회, 관련기관 관계자 면담 2회가 전부입니다. 공약 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이고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동시에 학습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학생 및 학부모와 담당교사 간의 마찰도 종종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표1 〈대전시교육청 5개 특수학교 현황〉

(2015. 4. 1. 기준)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합계
정 원	4명	6명	6명	7명	10명	
학급수	12	46	31	37	26	152
학생수	37명	210명	225명	306명	241명	1,019명
급당인원	3.1명	4.6명	7.3명	8.3명	9.3명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지역 부지 선정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수학교 용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도 안 되었다면 도대체 언제 설립을 한다는 것인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이 답답합니다. 타 도시의 경우 2014년 이후 4개의 특수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대구 세명학교의 경우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5년이 걸렸고, 울산 행복학교는 인가일로부터 개교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계획대로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면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개교한 대구 세명학교는 정신지체발달장애 특수학교로서, 현재 35학급 220명의 규모, 총 468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매우 넓고 충분한 시설들은 아늑한 느낌의 건물들로 구성되었고, 부지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별도의 건물로 들어와 있으며 교사동 내부에 지하1층 수영장을 비롯하여 직업교육실, 성교육위생실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의 경우 5개 특수학교에 단 1곳도 수영장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이 특수교육에 대하여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북부지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특수 교육기관 설립은 교육감 공약사업임에도 설립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다른 지역 설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최근 10년간 특수학교가 설립된 지역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 들어선 학교 23곳 중 도심과 떨어져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보니 6곳의 집값이 특수학교 설립 후 올랐으며, 1곳만 떨어졌고 1곳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세권이나 학군은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장애인 학교가 가까이 있고 멀고의 차이가 집값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통학을 버스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명실상부한 통합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초보

단계인 특수학교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홍보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제학교는 맞지만 특수학교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용지변경 승인이 안 되어서 특수학교 설립을 못한다고 미래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해보는 것이 특수학교 설립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동호 교육감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속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과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신동·둔곡지역을 북부 특수학교 설립의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에 특수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계기관에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용지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월 우리 교육청에 특수학교용지는 향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예정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용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특수학교용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 기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과학벨트 거점 지구 개발계획에 특수학교용지가 반영되면 원주민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토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가능 하면 신속하게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최상의 교육시설을 갖춘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특수학교용지가 반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과는 별도로 과학벨트에, 다른 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 대안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구미경 의원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학급 210명을 수용, 10개 전공과 편성으로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동호 교육감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전공과 중심의 진로 직업교육 특성화학교가 설립된다면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로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 향상 등의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2016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특수교육 졸업 예정자의 전공과 입학상황이 지원자 141명 중 탈락 23명으로 기존의 특수학교에 전공과 증원과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수용여건과 연도별 학생추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며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구미경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전문적인 제안과 대안들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전 교육의, 대전 특수교육 발전의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미경 의원

다음은 장애인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직업재활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 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지원 규모로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결국 부모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증 아이들의 부모들은 맞벌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돌발행동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루종일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빨래가 넘쳐나고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데다 일명 도가니 사건 같은

피해 사례 등이 많아 부모 입장에선 수용시설에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40대만 되면 급격히 신체의 노화가 시작돼 부모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서 비교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기능을 배우고 또 사회에 수용돼 작은 역할을 수용해 가는 통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 전공과로 입학하는 데에 정원상 한계가 있습니다. 전공과로 입학을 하지 못한 장애 학생들 23명과 전공과를 졸업 후 취업이 필요한 우리 장애 학생들 92명을 모두 수용할 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표2 <2016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현황>

(2015. 11월 현 기준)

고등과정 졸업예정자수	졸업예정자중 전공과 지원자수	전공과 합격자수	전공과 탈락자 수	비고
217명	141명	118명	23명	

대전에도 장애인재활시설인 무지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무지개복지센터는 시 직영체제로 전국 최초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9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며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 배양과 장애인이 사회적·경제적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전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지원, 맞춤지원, 재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통합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드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추가 건립과 장애인 직업교육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없는 통합사회를 위한 행복드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재활시설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전시의 추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지개복지센터를 비롯해서 15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5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자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에 비해서 시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도 다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장애인들이 일하는 보람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구미경 의원

또한, 동료 조원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2015년 10월 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장애인직업교육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은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둘러 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와달라며 무릎 꿇고 울며 호소하다 한 어머니가 실신하여 119에 실려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릎 꿇고 이토록 애원을 해야만 하는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떨칠 수 있는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자들도 더불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 발달장애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돌변해 위협을 가하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장애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선택 시장

다음 질문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직업교육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보호작업장 12개소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장 또는 고용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